

# 자유의 여정 안에서의 체코 형제복음교회

2019.10.24.

목사 다니엘 제나티

체코형제복음교회 총회장

체코교회협의회 회장

목사 이 종 실

예장통합 체코선교사

※ 본 강의 원고의 지적재산권은 강연자에게 있습니다. 수정 및 재배포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강연

다니엘 제나티

### 인사

친애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 벗들이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제를 여러분의 아름답고 자유의 나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 교회의 현황

저희 체코형제복음교회는 정확히 100년 전 칼빈주의 교회와 루터교회의 연합-합병-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날 때 이었습니다. 체코 지역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전쟁의 종전은 자유를 주는 제국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이 시기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세워졌고, 우리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247개 교회, 240명의 목회자가 있고, 그 가운데 80명이 여성입니다. 저희는 교회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징조입니다.

우리는 교회 자체의 잡지를 출판하고 있고, 6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

으며, 체코 전역에 27개의 센터가 있는 디아코니아(봉사기구)가 있는데 이는 체코 내의 두 번째로 큰 사회서비스 제공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군대, 교도소, 병원, 의료기관의 원목으로서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에큐메니칼적이며 사회로부터 매우 존경 받고 있습니다.

**왜 교회 이름으로 ‘체코형제’란 용어를 사용하는가?**

그것은 보헤미안 종교개혁, 특히 형제의 연합에 뿌리를 둔 용어입니다. 일부는 18세기 종교 박해를 피해 모라비아와 다른 지역에서 온 후손들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오늘날 모라비안 교회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형제의 새로운 연합을 설립한 독일 헤른후트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 **에큐메니칼 관계**

체코형제복음교회는 1918년 설립된 이래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교회협의회, 세계개혁교회 커뮤니티, 세계루터교연맹의 멤버입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세계 교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 미국, 이곳 한국의 개혁교회, 루터교회, 장로교회, 연합장로교회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 **1918-1948년대**

1차 세계대전 후, 체코슬로바키아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

다. 1918년 통합 후, 교회는 우선적으로 민족주의의 위협성에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거의 300년 후 체코 지역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 알려진 대 합스부르크 왕국으로부터 분리된 사실에 기인합니다. 이 제국은 중앙유럽에 위치하였고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첫 10년 동안 두 번째 위협요인은 반(反)가톨릭주의였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 세력은 가톨릭교회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정치적 자유가 로마가톨릭교회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체코형제복음교회는 이러한 위협성들에 대처해 왔으며, (이에 대해) 흐로마드카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신학자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939년, 저희 교회와 사회의 자유의 삶은 오랫동안 끝나버렸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히틀러의 군대에 의해 침략 당했고, 체코 지역은 독일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히틀러의 점령에 대항하여 저항하는데 참여했습니다. 교회로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 **1948년에서 1989년까지의 시기**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1948년 2월에 공산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냉혹했던 나치통치시기 후 3년은 또 다른 독재 통치가 권력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공신주의자들의 잔혹한

통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열로 고통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산주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했고, 어떤 이들은 인권침해와 종교자유 제한에 대항하며 저항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 가운데 흐로마드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처음부터 전체주의 권력에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멤버였던 밀라다 호라코바가 그들 중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치 점령에 반대했고 전쟁이 끝나기 전에 죽음의 위협을 당해왔습니다. 결국 공산주의 통치자는 그녀가 서구(세력)의 부역자이자 그 사회의 위험인물임을 보여주기 위해 계획된 정치선전 캠페인과 라디오 방송을 통한 여론조작 공개재판에 따라 처형했습니다. 제한된 조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살아갈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의 국가폭력의 압력에 저항하는데 실패한 사람들, 공산주의 통치체제의 다양한 분야에 협력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억압의 강도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변했습니다. 1950년대가 가장 잔혹한 시기였습니다. 1968년경에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라는 인류통치에 기반하여 공산주의 권력에 동의할 수 있었던 짧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8년 8월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들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한 후에는 상황이 심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다시금 사회주의자 통치는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을 감금(수감)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8월에 일어난 그 일이 점령이 아니라 사회주의 권 국가들의 필요한 형제적 지원이었다고 선언하지 않으려던 사람들은 그들의 학

교와 직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의 또 다른 멤버였던 안 팔라흐가 유명해졌습니다. 1969년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 바츨라프 광장에서 분신자결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산주의 국가의 군대들에 의한 체코슬로바키아 점령에 대항한 저항이었으며, 봉기하지 않는 체코 국민들의 비자발성에 대한 항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항의 불꽃을 밝히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 불꽃이 생명력으로 온전하게 생겨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바츨라프 하벨의 77헌장의 서명자들 가운데 체코형제복음교회의 설교자들과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헌장77은 (공산주의)통치에 의해 특별히 박해를 받은 전면에 있는 대변인과 함께 하나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일부 77헌장의 대변인은 체코형제복음교회 멤버들 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17일, 프라하 나로드니 거리에서 일어난 항의 소식은 해외에 대서특별 되었고, 예상치 못하게 전국적으로 산불처럼 퍼져나간 다른 사건들을 일으켜 결국 나라는 공산주의 독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발적 항의 행진이 실제로 왜 바로 그 날에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은 1941년 이후 국제 학생의 날로 표시됩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 저희 작은 나라에 있었습니다. 나치 점령에 대항한 가을의 학생 시위에 이어 1939년에 체코의 대학들은 라이히스프로텍토르에 의한 긴급조치로서 11월 17일 휴교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이 다 같이 체포되었고, 9명의 학생이 총상으로 사망했으며, 이후 1,200명의 학생들이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시

위 도중 총상을 입고 14일후 사망한 학생 안 오픈레탈은 이 힘든 시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프라하 알베르토프에서 열렸습니다. 50년 후, 1989년 11월 17일에 사람들은 나치 점령의 악행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베르토프에서 나로드니 거리를 향하는 평화로운 행진이 있었지만, 시위대들과 경찰이 충돌했고 평화로운 시위는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가혹한 개입은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시위는 이날부터 매일 일어났습니다. 이는 벨벳혁명의 시작으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공산주의 통치의 최종 철폐로 이어졌고, 40년간의 억압 후, 바츨라프 하벨이 새로운 자유 체코슬로바키아의 첫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문을 연 사건이었습니다.

우연하게도, 체코형제복음교회 대회도 1989년 11월 17일 금요일 바로 그 날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에 의해 구타당한 젊은 개신교인들이 대회에 도착하여 나로드니 거리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의해) 얼마나 잔혹하게 진압 당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당시 총회장은 즉시 라디슬라프 아다메크 총리를 향한 항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항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체코형제복음교회는 이후 매일, 매주, 매달 동안 벨벳혁명의 핵심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중요한 개신교 신학자 안 헬러 교수는 “그 혁명의 시기에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은 나에게 진정한 기적의 표시이다”고 말했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흐로마드카처럼 공

산주의 통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당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왕국과 직접적인 모순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권력과 교회의 협력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열은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가족들과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에는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역사의 이 장은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누가 잘 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와 자비와 용서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자유 시대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자유는 선물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유럽의 역사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폭력과 권력에 대한 수많은 욕망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 모든 것은 지나갔고, 그것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체코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보다 더 자유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부터 2013년까지 교회는 지배 권력에, 그리고 지배 권력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과장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재정보조를 통해, 교권의 후보자의 승인을 통해, 선거 전후 혹은 다른 방식으로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지배 권력에 매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자유 국가에서 30년을 사는 해입니다. 이런 삶의 자유가 주어진 우리가 이 비범한 특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요?

무엇보다 믿음으로. 새로운 강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문제에서 상실한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 관심,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을 일으키는 성령의 권능의 말씀에 의해 충격을 받습니다. 믿음은 지금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믿음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과 교회의 상태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얼마나 많이 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헌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성숙함을 포함합니다. 우리 교회법에 따르면 수입이 있는 교회의 각 구성원은 그 중 5%를 기부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꾸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각 개인은 그 혹은 그녀를 위한 교회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일 것 원하는지. 그것은 믿음과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저는 그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의 일부 영역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 계획을 채택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고,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 중 하나는 재정과 관련됩니다.

## 자생적 재정으로의 전환

체코의 역사에서 교회는 사적 기구가 아니라 공적 기구였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역들은 모두 공적 서비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사제들과 개신교 목사들은 지역 교회 공동체에서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1948년 이후, 공산주의 국가가 목사들에게 (사례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떠맡았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악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국가는 비판을 피할 수 있었고 심지어 설교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그 봉급은 생계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1989년 벨벳혁명으로 체코 국민은 자유를 누리며 살기로 결심했고 국가는 헌법 민주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 법률은 빠르게 바뀌었고, 교회는 더 많은 사회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고 교회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들은 교도소, 병원,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부가 된 체코 군대에서 복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국가와 교회 사이의 관계와 그 일부로서 교회들의 재정에 관한 법률은 2013년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주요 서비스, 특히 목사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에 교회의 구성원들이 익숙해진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구성원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인들은 목사들에게 감사했지만 책임지는 것을 잊었습니다.

2013년에 국가가 교회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목사들

의 봉급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극적이지 않기 위해서 (국가는) 2013년 임금보조금을 매년 5%씩 삭감하고 있습니다. 2029년에 우리는 (국가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의 현재 생활 방식을 보존하려면, 우리 스스로 목사들의 봉급을 위해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 신도들이 책임을 떠맡아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좀 더 경제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는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강하고 부유한 교회는 우리나라의 더 약하고 가난한 교회를 후원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의 유지와 필요한 수리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투자가 여전히 크게 필요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연대는 교회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고, 우리 교파 전체가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사회사역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다수의 억압에 시달리는 소수에 속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염려와 모순되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독재치하에서 우리만의 소수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들의 개념의 남용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가 우익 극단주의와 편협함의 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동되고 있음을 우려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적 가치를 말하는 반면 사랑, 용서, 화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여 살아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적 가치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대화, 연대,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온 난민을 받고 있는 유럽인들을 도울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난민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우리 사이에 팽배해 있고,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총회는 기후의 악화와 그에 따른 지구 생명체 위협에 관한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국회에 있는 그들의 대표들에게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요청하는 말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결론**

우리는 현대적이고 개방적이며 성경과 그 해석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 심지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사회의 주변부에서 자신

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증거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교회들과의 우리의 에큐메니칼 관계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이 기쁨과 걱정을 겪는 사람들의 풍부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소수자 기독교인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신시하고 그의 사역을 포기 하지 않을 자의 도움에 의존합니다.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9

## 두 번째 강연

### 이 종 실

예장통합 총회파송 체코선교사

오늘 총회장님 강연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와 밀접한 재정자립 문제를 한국교회가 주목해야할 부분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1.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교회재정자립 문제를 한국교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와 국가 관계 이 부분을 총회장님은 교회가 공적인 기관이었다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체코 교회의 공산정권의 통치시대 경험을 길게 설명하였습니다. 체코 교회가 재정자립 논의를 위해서 과거 공산정권 시대에 형성된 교회재정구조와 이로 인해 왜곡된 교회 교인들의 교회론과 교회생활을 재정립하는 것이 물질 즉 재정의 문제보다 더 긴급한 현안이 될 수 있음을 총회장님의 강연을 통해 감지할 수 있습니다.

2.

자유가 제한되거나 억압된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체로 과거의 시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기에 앞서 경험의 기억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체코 교회 뿐 아니라 체코 사회 지식인이나 일반시민 등 가릴 것 없이 정도의 차이일 뿐 거의 동일한 현상입니다.

저는 동료 체코 목회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경험에 대해 체코와 한국 상황을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체코는 공산주의 정권 통치를 받으면서 같은 민족이 이데올로기로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무혈혁명 벨벳혁명으로 나라를 바꾸는 경험을 한 반면, 같은 민족인 우리 한국은 이데올로기로 서로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전쟁을 했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친척들 간에 총부리를 서로 겨누고 죽이고 죽고 하는 경험을 한 뒤 나라가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계속 나뉘어져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로 무장을 하였고, 남한은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만약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의 공존의 길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 한국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전쟁으로 공멸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코 교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밀라다 호라코바의 경험보다 흐로마드카의 경험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더 필요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나는 우리의 상황과 체코 교회의 경험을 비교하여 체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설명하곤 하였습니다.

### 3.

오늘 다니엘 제나티 총회장님의 강연을 통해 체코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짐작하셨을 줄 압니다.

14세기 15세기 체코 종교개혁의 시기- 신성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국의 통치(1781년 관용의 교회 시기) - 나치 파시스트 통치 - 공산주의 통치 -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와 사회,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대립되고 왜곡되고 그리고 교회는 내적으로는 훼손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들은 언제나 교회의 재산소유방식의 법적문제, 목회자 봉급문제로 그 양상들을 특징짓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89년 이후 교회재산반환 문제를 논의할 때 교회재산 소유의 문제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시기에 많은 교회재산은 개혁파 교회들의 소유였으며, 1621년 백산전투 이후 가톨릭이 개혁파들의 소유와 그들의 교회재산을 모두 몰수 하였습니다. 1781년 관용의 시기에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교회 지원을 위해 별도의 재단에 교회재산을 귀속해서 관리하였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교회재산은 그 법적 소유권한에 대한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은 교회재산을 국유화하면서 목회자들 사례비를 지불하고, 교회재산 상당부분을 병원 학교 복지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1989년 벨벳이후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에 의한 교회와 종교단체에 대한 재정보장에 대한 법(218/1949 Sb)”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와 결정은 현재 유럽에서 1905년 국가로 부터 재정을 독립한 프랑스 교회, 1960년 신학교와 기독교학교를 국가가 지원하고 교회는 독립하는 오스트리아 교회의 경우에 이어 세 번째이며, 중부유

럽과 동유럽에서는 아주 첫 사례입니다.

4.

오늘 총회장님은 교회재산반환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사실 많은 질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회가 교회재산반환과 배상의 법을 타결하기 위한 논의가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이 논의에 대한 일반시민(사회, 언론)의 시각은 어떠하였는가? - 만약 일반시민의 지지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있었는가? 가톨릭과 개신교회들 간의 견해의 차이는 없었는가? 개신교회들 간의 견해 차이는 없었는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정을 하였는가? 등등의 많은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가 교회에게 재산을 반환해야만했던 정치적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1989년 벨벳혁명 이후 체코슬로바키아가 서방과 세계 자유민주주의에 동참을 헌법을 바꾸어 선언하였습니다. 새로운 헌법제정은 선포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헌법적 가치와 정신의 문제였으며, 이것의 실천의 문제는 국제적으로 국가신뢰도의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체제의 경제는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된 시스템입니다. 혁명 이후 과거 경제 시스템을 국가 의존을 낮춰야 했습니다.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의 경우는 국가재산을 해외기업에 팔거나 유치하는 정책을 폈던 반면, 비록 부정부패로 실패를 했지만 체코는 국가의 부를 유출하지 않는 민영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의 대상이 아닌

교회재산 - 교회당, 수도원, 수도원에 딸린 농지나 삼림은 “반환”이란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반환하는 차원이 아니라 체코공화국의 자유민주사회 체제는 국가와 교회는 이전 공산정권처럼 적대관계가 아니라 교회도 사회의 일부라는 인식의 변화를 국가가 요구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 5.

공산주의체제에서 자유민주체제로 이행된 후기공산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세 단계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단계, 과거 공산정부가 제공했던 일자리, 주택, 의료보장, 교육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정부를 선거로 선출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선택했는데, 민주주의 제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더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이 필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하면 민주주의와 번영하는 경제시스템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 동유럽에서 일어나는 시위들을 소식을 들으시게 되면, 대체로 세 번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점에 대한 대안이 교회 밖에 없다는 것을 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근에 대두되는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은 과거 마르크스 유물론 주의가 이해하는 생산수단이 토지나 자본이 아니라 자연환경과 인간이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재산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저변의 사회변혁의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선교사로 선교신학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선교적과제를 꾸준히 탐구하고

있습니다.

6.

체코 교회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선교사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교회재산반환의 법이 결정된 직후, 체코 교회의 재정자립이라는 새로운 길은 피할 수 없게 되어 체코 목회자 한분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작은교회운동의 다양한 형태를 탐구하였습니다. 12개 대표되는 형태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공통되게 재정자립과 교회의 본질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씌름하고 있었습니다.

체코 교회가 <레포르만다 2030>이란 주제로 재정자립문제를 토론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란 무엇인가? 지역교회란 무엇인가? 살아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모임에서 마다 연구 발표와 토론을 하고 그리고 토론을 다듬어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다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문서를 만들어내는데 지난 몇 년간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체코 교회는 재정자립은 교회본질의 문제와 분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작은교회운동을 둘러보고 경제적 문제를 각자도생하는 관점에서는 ‘기존의 기성교회와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은교회운동을 안내해주신 분에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작은교회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목사 사례비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 “극심한 경쟁적인 회중교회적 구조(극단적인 개교회주의적 구조)에 대한 변화 없이 교회본질에 대한 고민이 가능하겠는가?” “그 구조에 대한 변화 없는 재정자립의 의미란 무엇일까?” “작은교회운동이란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교단은 9,000개 지역교회 가운데 25퍼센트가 완전 미자립 상태입니다.

예장통합 교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산 아래에서 각자도생의 개교회주의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부유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부유한 노회가 가난한 노회를 돕는 형식의 재정자립정책이 과연 올바른 교회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는가? 개혁을 갈망하는 목회자들은 신학적으로 숙고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총회장님의 강연을 통해서 체코형제복음교회는 기본적으로 약 300개 지역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인식 속에서 재정자립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한국교회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